

‘지속 가능한 건축사’ 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to become sustainable architects

한국의 건축사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간 한국의 건축사는 전문자격자로서 법제도의 보호 아래 개발도상국가의 특징인 많은 건축물량과 함께 고도성장 속의 안주를 누려왔다. 그러나 IMF 이후 근년에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하락과 함께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한국 경제로 인한 일거리의 감소, 그리고 이와 반비례로 양산되는 건축사로 인한 3중고로 인해 불행이도 ‘핸드폰 건축사’ 를 양산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환경과 에너지가 최대의 이슈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계는 ‘그린’ 과 ‘제로 하우스’ 등 ‘지속 가능한 건축물’ 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사’ 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는 오로지 자기계발과 이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외부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문제는 자신의 변화된 마음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인 것이다.

건축사 자격은 처음 면허로 시작되어 아무런 재교육 없이 현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에 기술자교육의 일환으로 건축사도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 주간씩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위의 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적인 것에 더하여 합숙까지 해야 하는 등 불편 내지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하였으나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나았다. 재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 이후, 건축사들은 스스로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2009년도 건축문화신문의 대한민국 평균건축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의 40%가 대학원의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작년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또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지역을 고려하여 상시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교육의 보편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이해할 수 있으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각 시도회는 나름대로 자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건축사회는 본부와 함께 있음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VE 교육과 부동산 개발과정 등을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반응도 뜨거운 편이다. 또한 BIM과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도 수시로 행하여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진화하는 현대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사’ 가 되려면 우리도 한시바빠 미국건축사협회와 같은 열린 교육제도를 갖춰야 한다. 자기 형편에 맞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학 및 학회 등과 연계해야 한다. 정부는 한 시라도 빨리 건축사법에 의한 유일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건축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 및 징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영수 / Kim Young-soo, KIRA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 서울산업대, 연세대, 명지대 (공학박사)
- 중앙대 대학원, 광운대 법무 대학원 강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서울시, 인천시 건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기술사, C.V.S, C.M.P

지금 세계는 IT산업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전문자격자들의 수난시대가 되고 있다. 개업의들은 눈 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자기분야의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약이 나온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면 무능한 의사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사란 직업이 없어진다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전기, 설비, 구조 등 건축의 기술적인 것들은 이미 분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계획하고, 그 계획도를 가지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건축설계를 해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 날, 건축사들을 향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계속 불리해지고, 먹을 파이는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설계로 성공한 건축사 등, 최근 건축문화신문의 지방건축사 시리즈는 ‘하면 된다’ 는 신념을 갖게 한다. 즉 현실을 타파하는 길은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하며 경영기법도 배워야 한다. 또한 사회의 리더로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문학, 사회, 철학을 통해 교양을 함양하고, 사회공동체에 봉사를 통한 책무를 다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지속 가능한 건축사’ 의 길이다. ■